

5. 2023년 외화채권(KP) 시장의 특징 및 2024년 전망

(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 고지성·차준영)

1. '23년 중 거주자의 외화채권(Korean Paper, 이하 KP) 순발행 규모는 167억달러로, 역대 최대 규모(기존 '21년 129억달러)를 경신하였다. '23년 중 상환 규모(397억달러)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'24년에는 405억달러의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다.

2. '23년 KP 시장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, KP 발행(공급)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KP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. 반면, 아시아 채권시장에서 KP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외화채권(이하 '중국물')은 순상환되었으며, 중국물에 대한 대체 수요 중 일부가 KP로 유입되며 KP 발행 호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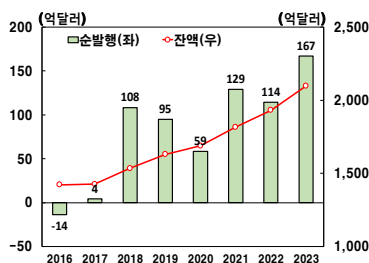
3. 두 번째는 '23년중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KP의 발행금리도 큰 폭 상승하였다는 점이다. 다만 발행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KP스프레드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.

4. 세 번째는 소수 대기업(83억달러)과 공기업(68억달러)이 KP 발행을 주도(전체 순발행의 90%)하였다는 점이다. 이는 해외투자·운영자금 수요 증가(민간기업)와 KP발행을 통한 원화자금 조달의 금리 이점 증대(공기업) 등에 기인한다. 반면 은행의 경우 풍부한 외화유동성 지속, 외화대출 감소 등으로 순발행 규모(29억달러)가 '22년(91억달러)에 비해 1/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.

5. 마지막으로 '23년중 KP 발행 통화 및 유형이 다양해졌다. '23년 유로화 및 스위스 프랑화 KP 발행액은 '22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다. 유로본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발행액이 늘어났으며, 일부 민간기업은 과거에 발행이 많지 않았던 교환(또는 전환)사채 형식으로도 KP를 발행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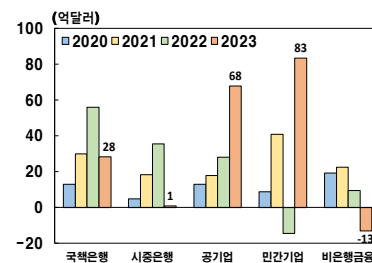
6. '24년에는 대규모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지만, 주요 KP 발행기관의 높은 신용도, 최근 완화적 글로벌 금융여건 등을 감안할 때 KP 발행 및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. 다만,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과 달리 일부 기업들은 KP 발행여건 악화시 원화채권 발행, 스왑수요 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, 이는 국내 채권시장, 외화자금 시장 등에 수급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아울러 중국물 외화채권 수요 회복, 국내 부동산 PF 부실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도 KP 시장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.

<KP 순발행 및 잔액>¹⁾²⁾



주: 1) 23년말 기준
2) 정부채(외평채), CD 제외
자료: Bloomberg

<부문별 KP 순발행>



자료: Bloomberg

<24년 KP 만기도래 규모>

부문별		만기도래		
국	책	은	행	187
시	중	은	행	93
일	반	기	업	57
공	기	업		50
증		권		9
캐	피	탈		7
기		타		2

자료: Bloomberg, 각 은행